

추도사

활산당(活山堂) 성수대종사(性壽大宗師)님!

벽력같은 사자후로 후학들을 지도하시면서도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로 사부대중을 제접하시더니 이렇듯 홀연히 세연을 접고 물 흘러가고 바람 불어오는 그곳으로 미소 지으며 떠나십니까. 영축산의 봄을 알리던 홍매화와 벚꽃들도 하루아침에 그 꽃잎을 떨구며 스님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원효대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후, 약관의 나이에 스승을 찾아 제방을 순례하던 스님에게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범어사 일주문에서 동산스님을 향해 ‘제일가는 도인 나오라’고 대성일갈하던 모습이나, 효봉스님의 떡살을 잡고 도를 내놓으라고 사자후를 토하던 모습이나, ‘일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닦으라고 하라’며 성철스님의 떡살을 잡던 일화는 단순한 결기(決起)가 아니었음을 후학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내딛는 불같은 기상으로, 법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의 떡살잡이가 임제의 활(喝)과 덕산의 방(棒)에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근성과 치열한 결기로 마침내 천하만물이 선(禪) 아닌 것이 없고, 세상만사에 도(道) 아닌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평온에 머무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수 큰스님!

한국불교의 기틀을 바로 세운 봉암사 결사에도 당당하게 참여하시어 우리 불교의 앞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에게는 이(理와) 사(事)의 경계에 걸림이 없음을 증명하시듯 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해인사와 범어사 등 종단의 주요한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시며 여러 본사의 면모를 일신하셨고, 1981년에는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셔서 법난 이후 혼란에 빠진 종단을 수습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판의 소임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선객으로서 스스로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통도사 극락암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이신 경봉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뒤 ‘금년 내로 50년 지도한 결과를 내 보이라’는 당부를 받들어 평생 동안 명안종사(明眼宗師)를 배출하겠다는 원력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 선원을 열어 간화선 대중화와 후학 양성,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일에 매진해 오셨습니

다. 이처럼 스님의 일생은 치열한 구도열로 가득했으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일념으로 매진한 삶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활산당 성수대종사님!

일찍이 자장율사께서 이곳 영축산에 불보종찰을 개창한 이래 통도사가 배출한 도인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절 인연을 함께한 후학들과 사부대중은 이 시대의 큰 도인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 힘듭니다.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도를 얻으려면 명안종사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더니 이제 저희는 또 어떤 명안종사를 찾아 도를 얻어야 합니까. 큰스님께서 가시니 영축산은 텅 빈 듯하고, 꽃잎이 흐르는 물 위에는 달빛조차 빛을 감추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평소에도 사람 몸 받았을 때 일초도 늦추지 말고 바로 발심하여 보물을 찾으라고 하시더니 마지막 말씀도 다른 것 다 버리고 보물을 찾으라는 당부이십니까.

도인을 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다시 와서 목적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하루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것이라는 그 보물을 찾아 주옵소서.

불기2556(2012)년 4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